



장애아들  
대학 졸업시킨  
어머니

# 새보람

SAEBORAM



2011년 신년인사회 화보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2)796-4280

www.kappd.or.kr

제221호

2011년 2월

## 장애인차별이 없는 세상을 향해!!

2008년 4월 11일 우리의 오랜 염원이었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수많은 차별의 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힘을 냅시다. ‘장애인당사자’ 스스로의 힘으로 차별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면 차별은 계속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행복한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일구어 나갑시다.

**내가 참으면 차별은 계속됩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KAPPD 법인 Korea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1월 20일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11년 신년인사회 및 전국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 김정록 중앙회장을 비롯한 협회 지도자들과 행사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희망찬 2011년을 기원하는 ‘케이크커팅’을 하고 있다.

국내 최대의 장애인당사자단체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의 전국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2011년 신년인사회 및 전국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이하 대회)」가 지난달 20일(목)부터 21(금)까지 1박 2일간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지장협 산하 16개 시·도협회장 및 232개 시·군·구지회장, 시설장(복지관, 작업장 등)을 포함해 500여명이 참가한 이번 대

회는, 전국의 지장협 장애인지도자들이 신묘년(辛卯年) 새해를 맞아 서로 교류하며 협회 발전을 다짐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행사의 첫째 날, 김정록 중앙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의 최대 수확은 다수 장애인당사자의 ‘지방의회 입성’, 이정선 의원의 한나라당 ‘장애인위원장 당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양경자 사태 해결’ 등을 통해 지장협의 저력을 확인한 것”이라고 2010년을 평가하며

“이 모든 성과는 전국의 지장협 장애인지도자들과 회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협회의 구성원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한마음이 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단합을 당부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장애인들의 인권과 복지가 한 단계 발전한 2011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김정록 중앙회장은 개회

식 이후 실시된 ‘중앙회장 특강’을 통해 「2011년 지장협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김정록 중앙회장은 협회 운영의 ‘민주적 의결체계’ 강화, 사무행정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룹웨어 시스템’ 도입, ‘장애인정책연구소’ 강화, 장애인당사자의 요구가 반영된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 실현 등을 「2011년 지장협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로 설명하며 “그 어느 해보다 풍요롭고 희망찬 2011년을 지장협의 힘으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장애인지도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한나라당 원희목 국회의원(당대표 비서실장)은 전국의 지체장애인지도자들에게 “리더쉽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펼쳤고, “꿈과 열정”을 주제로 하는 부산시청 김영기 도시정비담당관의 강의도 마련됐다.

〈12~13면 계속〉





## 발행인 칼럼

### “제10기 신임 시군구 지회장 여러분들에게”

습이나 형식을 담은 그릇 또한, 가끔은 내용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자리매김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232개 시·군·구지회를 갖고 있는 우리의 조직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조직의 비전과 개인의 비전, 중·장기 발전계획, 정보

시스템에 바탕을 둔 의사소통이나 회원관리 등 사회복지조직의 운영에 큰 변화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변화의 중심에 서있는 ‘국가’는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그것들을 만들어가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바람직한 면도 있지만, 다른 면으로는 걱정이 되는 부분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급변하고 있는 사회변화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장애인복지실천에 있어 이런 가치들은 과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그 조직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의 소중한 ‘정신’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희생과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고서 이 조직의 사명을 현실속에서 만들어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은 회원들을 만나 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와 지역사회에서 해결해 나갈 내용을 고민하면서 끊임없는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고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본래 ‘설립취지’와 ‘사명’에 바탕을 둔 서비스들을 선택해 가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조직이 받아 안고 가야할 한계를 넘어서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각기 다른 목소리와 생각들을 하나로 모으기란 애시 당초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과정일수록 더 큰 보람과 성장으로 다가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2011년도를 시작하면서 스스로 다짐하고 생각한 운영방침을 “신뢰와 관용”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자신의 철학과 조직의 사명이 배어있는

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는 기회를 가지기를 바래 봅니다.

사랑하는 ‘제10기 신임 지회장’ 여러분!

지난해에 대통령이 던진 ‘공정한 사회’라는 말이 사회적 화두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화두에 말을 덧붙인다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현 정부는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가 정의로운지 묻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를테면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 등을 어떻게 ‘올바르게 분배’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각 개인에게 합당한 몫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 글이 새롭게 시작하는 ‘제10기 지회장님’들에게 지장협의 정의는 무엇이고 넓게는 장애인복지의 정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공정한 사회’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뜻 깊은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2월 10일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김정록**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10기 신임 지회장’ 여러분!

먼저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제10기 시·군·구 지회장’으로 임명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장애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우리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각 지역의 선봉장이 되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생각을 하니 너무도 반갑고 든든합니다.

제10기 신임 지회장 여러분!

요즘 저는 ‘변화’와 ‘속도’가 세상 살이의 중심에 와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지난 ‘2010년’은 결코

## 편의증진 전문가 간담회 실시

지체장애인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센터장 김정록, 이하 센터)는 2011년 편의증진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각 지방센터별 연구과제를 부여하여 지금까지 정리되지 않고 있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편의증진 전문가 간담회」를 지난 1월

28일(금) 오후 2시 이룸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중앙 및 16개 광역센터 직원 23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광역센터 2010년 운영현황 및 2011년 사업계획’,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사업’, ‘현재 진행중인 특수학교 및 고등교육기관 실태조사와 고용노

동부 산하기관 장애인편의시설 컨설팅 사업건’ 및 ‘2011년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고, 실무를 담당하면서 느낀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중앙센터 홍현근 팀장은 “최근 급증하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함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례에 대한 문제점과 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여 고질적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편의증진 전문가 간담회」가 지난 1월 2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새보람 제221호 2011년 2월 15일

회 장 · 발행인 / 김정록 편집장 / 이현일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 / 서울라05825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 hambaknun30@nate.com

대표전화:(02)796-4280 FAX:(02)796-428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인사 동정

• 임명 송 용 성 중앙회 조직행정실장



# 제10기 시군구 지회장 리더쉽 교육



전국 지장협 신임 지회장의 자질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10기 시·군·구지회장 리더쉽 교육'이 2월 10일 레전드호텔에서 열렸다. '지장협활성화를 위한 지도자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는 김정록 중앙회장.

한국장애인복지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는 지난 해 12월 말로 '제9기 시·군·구지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지도자 등용의 문호를 대폭 개방, 지역장애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함께 일할 뜨거운 열정을 가진 자들을 '제10기 시·군·구지회장'으로 새롭게 임명했다.

앞으로 지장협을 대표해 지역장애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의 선봉장에 서게 될 이들의 역량과 자질을 강화하기 위한 '제10기 시·군·구지회장 리더쉽 교육'이 지난 10일(목)부터 11일(금)까지 1박 2일간 대전 유성에 소재한 레전드호텔에서

열렸다.

전국의 신임 지회장을 비롯해 250여명이 참가한 이번 교육에서는 리더쉽 향상과 의식개혁을 도모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이 실시됐다. 또한 전국의 지장협 지도자들이 상호 교류하며 연대 의식을 함양하는 뜻 깊은 시간도 마련됐다.

교육의 첫 번째 날 김정록 중앙회장은 '지장협활성화를 위한 지도자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김정록 중앙회장은 특강을 통해 "지장협이라는 거대한 배를 띄워 장애인권리 쟁취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국 지회장들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밝히며 신임 지회장들의 분발을 당부했다.

김정록 중앙회장의 특강에 이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최기호(왼쪽) 사무관의 '2011년 장애인정책 추진방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계천(오른쪽) 기업지원부장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강의.



지장협 전반에 대해 강의하고 있는 중앙회 김태호 사무총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최기호(왼쪽) 사무관의 '2011년 장애인정책 추진방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계천(오른쪽) 기업지원부장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강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중앙회 송용성 조직행정실장의 '지장협 실무전반에 대한 강의', 다시함께센터 유복임 소장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강의가 차례로 실시됐다.

또한 첫째날 교육이 끝난 후에는 신임 지회장들이 조를 나눠 협회 및 장애인 복지 발전에 대

해 논의하는 '분임토의' 시간이 마련됐다.

이어 교육의 두 번째 날에는 중앙회 김태호 사무총장의 '지장협 전반에 대한 강의',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동작구지회의 '모범지회 사례발표', '분임토의 결과 발표' 등이 실시됐다.



김정록 중앙회장이 교육을 이수한 신임 지회장에게 '수료증'을 수여한 후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중국 하북성잔질인연합회, 28일 중앙회 방문 산하 시설 견학...양국 장애인복지 발전 위한 '협력' 약속

중국 하북성잔질인연합회(河北省殘疾人聯合會, 이하 연합회)의 임원진이 지난 1월 28일(금) 오전 11시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여의도 이룸센터 3층)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한국의 대표 장애인단체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의 교류 및 선진 장애인시설을 견학하고자 하는 연합회의 간곡한 요청으로 성사됐다.

이날 양측은 한국과 중국의 장애인복지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물론, 향후 양국의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특히 연합회는 오는 5월 8일(일) 잠실 주경기장에서 개최되

는 '제20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에 중국 선수가 참가하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접견을 마친 후 김정록 중앙회장은 가브리엘작업활동시설(원장 김혜경)에서 장애인이 직접 생산한 '천연비누' 등을 선물하며 "일회성의 만남이 아닌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국의 장애인복지발전을 이뤄내자"라고 제안했다.

이에 하북성잔질인연합회 왕지항(王志恒, 男) 부이사장을 비롯한 연합회의 임원진은 김정록 중앙회장의 제안에 적극 동의를 표하며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

중국(하북성잔질인연합회)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접견을 마친 후 연합회 임원진은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정의철, 이하 복지관)을 비롯, 복지관 내 위치한 서울북부장애인직업재활시설(원장 신연화), 초록어린이집(원장 이경자)을 견학했다.

한편, 하북성은 중국 북부의 성으로 베이징과 톈진을 둘러싸고 있으며, 크기는 한반도의 두 배에 달한다. 약 7천만명의 인구 중 등록 장애인은 약 240만 명이며, 연합회는 하북성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중앙회를 방문한 하북성잔질인연합회 임원진들과 김정록 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임직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한 하북성잔질인연합회 임원진.



# 박용갑 중구청장과 신년 간담회 가져

## ‘복지관’ 건립 전의...박용갑 구청장 “무조건 찬성”

###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윤석연, 이하 대전협회)는 지난 1월 25일(화) 대전시 5개구 지회장들과 함께 박용갑 중구청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정용기 대덕구청장, 박환용 서구청장과 면담에 이어 대전시 5개구 중 세 번째로, 윤석연 회장을 비롯한 방문단은 박용갑 중구청장과 함께 신년인사 및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윤석연 대전협회장은 “대전 중구를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박용갑 중구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중구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관 건립’을 건의하며 “국가 전체적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지역 사회복지실현을 완성하기 위한 장애인복지관



윤석연 대전협회장을 비롯해 지난달 25일 대전 중구청을 방문한 대전지체장애인협회 지도자들이 박용갑 중구청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설립이야말로 장애인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용갑 중구청장은 “13~14년 정도 장애인 단체에 있어서 장애인의 실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장애인복지관을 짓는 것은 무조건 찬성이며, 권선택 지역국회의원과 상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구청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오

석주 주민국장에게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실무적 검토를 지시했다.

한편, 대전협회는 각 구의 특성화에 맞는 복지정책의 수립과 운영을 위해 대전시의 5개구의 구청장님들과의 면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후, 전국 최고의 복지도시 대전을 위한 비전을 대전광역시 염홍철 시장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 온정의 손길 이어져 화제

### 독지가, 방한의류 150점 및 성금 기탁

### 전남협회 광양시지회

장애인 1000여명이 회원으로 있는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 광양시지회(지회장 강진산)에 지역의 독지가들의 사랑의 손길이 이어져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21일(금) 광양읍 인동리에 위치한 의류제조업체인 경성물산(대표 유형준)은 겨울철용 방한의류 150점을 광양시지회에 후원했다.

유형준 대표는 “이상한과로 인해 올 겨울은 유난히 추운 겨울을 맞고 있다”며 “설을 맞아 비록 작은 것을 후원해 드리지만, 장애인들이 조금이나마 추위를 덜 수 있으면 좋겠다”고 후원의 목적을 밝혔다.

또한 유 대표는 “장애인협회와 오랫동안 유대를 맺어왔다”며 “취업을 원하는 의욕 있는 장애인이 있다면 언제든지 채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같은 날 광양제철남초등학교(교장 김영종)학생들이 모은 성금 50만원도 광양시지회에 전달됐다. 광양제철남초등학교는 같은 달 14일(금)에는 지역원로인 김광영 씨가 떡 24kg를 후원한 바 있다.

강진산 지회장은 “이렇게 지역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 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설날을 맞아 추운날씨에 불경기까지 겹쳐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우리 회원들을 초대해 골고루 나누겠다”고 약속했다.

##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개최

### 장애가정 및 학생에 장학금 전달

### 경남협회 창원시지회

경상남도지체장애인협회 창원시 성산구지회(지회장 박성호)의 후원회는 지난달 17일(월) 창원동 팔용동에 소재한 미래웨딩캐슬에서 열린 ‘복지증진대회’를 개최하며 장애인 자녀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에게 각각 ‘장학금’과 ‘생활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장애인 자녀는 대학생 22명과 고등학생 7명으로 모두 2천5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됐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12가정에 모두 6백만원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현재 25명의 회원을 둔 후원회는 지금까지 모두 262명의 학

생에게 15억9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63가구의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도 3천1백여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전달해 오고 있다.

이날 서준수 후원회장은 “사랑과 나눔의 아름다움은 희망”이라며 “지체장애인가족을 위해 11년을 한결같이 나눔을 실천해 온 후원 회원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에 박성호 창원시 성산구 지회장은 “이 자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진정한 화합과 소통의 장”이라며 “오늘 이 훈훈한 감동이 장애를 넘어 실질적 인간평등의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김경희 씨, ‘사랑의 쌀’ 전달

### ‘합동결혼식’ 참가자 24일까지 모집



‘사랑의 쌀’ 전달 모습.

### 충남협회 아산시지회

한국프로사진협회 김경희 충남지회장과 김상렬 부지회장은 지난 2월8일(화) 오후 2시 아산시 권곡동 소재한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 아산시지회(지회장 이창호)를 찾아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사랑의 쌀170kg(20kg 7포 · 10kg 3포)은 지난 1월19일 김경희 회장이 회장 취임 시 화환대신 받은 것이다.

이날 김경희 지회장은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해 죄송하

다”며 “지속적으로 지역 어려운 이웃을 위한 각종 봉사 활동을 펼쳐 훈훈한 정을 나누



지난해 개최된 ‘장애인 합동결혼식’의 단체 기념촬영 모습.

는 사회 구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지회는 경제적 여건과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식을 미뤄온 장애인들을 위해 ‘합동결혼식’을 준비중에 있다.

오는 4월8일 오전11시 충남 공주 백제체육관에서 실시되는 합동결혼식에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2월25일(금)까지 구비서류를 지참해 지체장애인협회 아산시지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체장애인협회 아산시지회 전화 041-546-1515(심연숙 총무팀장)번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창원시지회 후원회가 복지증진대회를 열고 장학금과 생활지원금을 전달했다.



# 2010년 업무평가 및 정기총회

## 2010년 평가 및 결산, 2011년 예산 심의

### 경북협회 김천시지회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지회장 박선하)는 지난 1월 27일(목) 오전 11시 미가뷔페에서 '2010년도 업무평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박선하 지회장과 김천시청 장정영 복지위생과장, 조영애 장애인복지담당계장, 지회 운영위원, 분회장 등 60여명이 참석하여 2010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2011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김천시지회 박선하 지회장은 "지난 1년 동안 김천시지회는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각종 장애



지장협김천시지회 회원들이 '2010년 업무평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체육대회, 춘·하·추계수련회, 사랑의 김장, 사랑의 쌀·꿀·라면 나누기, 사랑의 전등리모컨 나누기 등을 실시하며 지역사회로 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다"며 "특히 김천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협약은 장애인 인

권보호와 편의증진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지난 2010년을 평가했다.

이어 "지역 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도약하는 2011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는 의지를 전했다.

### 경북협회 구미시지회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구미시지회(지회장 권순종)에서는 구미시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카툰전시회'를 2월 한달간 이마트 구미점 3층 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합니다!"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전시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경사로 등의 장애인편의시설을 이해하기 쉬운 '카툰(cartoon 만화)'으로 표현함으로써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리기 위함이다.

이번 전시회를 주최한 구미시지회 권순종 지회장은 "장애인

##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합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카툰전시회' 개최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구미시지회가 2월 한달간 개최할 예정인 '장애인 편의시설 카툰전시회' 모습.

편의시설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인과 임산부 나아가 시민 모두에게 필요한 시설"이라며 "이번 카툰전시회를 통해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비롯하여 편의시설 설치 확대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지역사회와 시민의 관심을 요구했다.

### 의정부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SBS방송 드라마 '파라다이스 목장'에 출연중인 인기탤런트 이연희 씨가 지난 1월 18일(화) 의정부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인숙, 이하 의정부복지관)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이날 이연희 씨는 의정부복지관에서 직업적응훈련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옷걸이 조립 작업과 주간보호센터에서 실시하는 요리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이용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복지관 모금행사인 '톨게이트

## 탤런트 이연희 자원봉사 참여



의정부복지관 이용자와 함께 옷걸이 조립 작업을 하고 있는 탤런트 이연희 씨.

모금'에 참여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자원 봉사를 마친 후 이연희

씨는 "앞으로 복지관과 연계하여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 김천신협 봉사단, 자원봉사 및 무료급식 실시



김천신협 봉사단이 재가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가사지원 봉사를 하고 있다.

###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천신협 봉사단(회장 장영호) 34명은 지난 1월 26일(수)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선하, 이하 김천복지관)에서 '자원봉사활동 및 무료급식'을 실시했다.

김천신협 봉사단은 복지관 내 청소는 물론 재가장애인 2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가사지원 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복지관 1층 집단급식소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소고기탕국과 비빔밥 180인분을 지역장애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했다.

김천신협 봉사단은 지난해 김천복지관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월 1회 무료급식과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소외된 지역장애인에게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 실시



지난 1월 31일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 모습.

###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은 지난달 31일(월)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정의철)에서 지난달 31일(월) 떡국을 끓여 대접하는 설맞이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는 전광우이사장을 비롯한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설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보다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국민연금공단은 350인분의 떡국과 고기,

떡, 과일을 준비하여 장애인들에게 즐거운 잔칫상을 만들어 주는 것은 물론, 정성껏 준비한 떡국을 몸이 불편한 장애인분들을 위해 직접 나르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전광우이사장은 복지관 이용 고객들에게 "2011년 만큼은 장애인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이 평안하길 기원한다"라고 새해 덕담을 건넸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측은 이번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자 꾸준한 자원봉사를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자녀교육비·장애수당 지급 시 금융재산 조사”

###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심의·의결…외국인 장애인 등록 허용

앞으로 자녀교육비와 장애수당 등을 지급할 때 지급 대상자의 금융재산을 조사하는 등 수당 지급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 1일(화)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 관련 수당이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의 신청인은 지급 신청시 금융정보, 신용정보 등을 제공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현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을 수령한 경우에만 환수

할 수 있지만 수당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도 환수할 수 있도록 환수 규정을 정비해 국가 재정의 불필요한 누수를 일 계획이다.

또한 재외동포와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도 이날 회의 를 통해 의결됐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다문화, 국제화 시대에 국내 거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증가와 외국인장애인 등의 복지욕구 확대 등에 따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등록 허용과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인과 그 가구의 금융재

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과 형평성을 기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개정법률안에는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등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고,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신청시 금융재산 조사가 실시된다.

복지부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해당 대상자에 대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 관련 수당의 지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습.

## 기초수급비 압류방지통장 6월 도입

### 복지부, 8일 주요 금융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이하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지급된 생계비가 압류당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주요 금융기관이 오는 6월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 압류방지통장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8일(화)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최근 급여압류에 대해 사후적인 법률자문을 구해오는 사례가 지난해 1,400여 건에 이르는 등 최근 들어 부쩍 증가추세에 있어, 생계가 어려운 국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있지만, 사실상 압류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압류방지통장 도입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기관과 도입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지난 8일(화) 오전 주요 금융기관과 기초생활보장 급여 압류방지 통장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압류방지통장 도입에

참여할 예정인 금융기관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농협, 우체국,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협동조합 등 22개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은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수급자들이 알기 쉽도록 ‘행복복지키움 통장’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진수희 장관은 “수급자들에게는 생계비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유일한 소득원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생계비를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은 의미있는 제도개선”이라며 “앞으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한부모지원 등 법률상 압류금지 규정이 있는 다른 주요 복지급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에이블뉴스〉

## 인권위 ‘전남 외판섬 장애인 착취’ 직권조사

### 현지 방문해 피해자-선주 직접 조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전남 외판섬에서 선주가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인부들을 상대로 임금을 착취하고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권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지

난 2일(수) 밝혔다.

이 섬에서는 인부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선주의 폭력과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혹이 지난해 10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인권위 장애차별조사과는 의혹 규명을 위해 현지를 방문해 피해자와 선주 등을 직접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해 내용을 전해 듣기만 한 상황이라 사실 관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돼 직권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영화 ‘글러브’ 실제 주인공 청와대 방문



이명박 대통령 내외와 영화 ‘글러브’의 모델인 충주성심학교 야구부원들의 기념촬영 모습. ©청와대

청각장애 야구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글러브’의 실제 모델인 충북 충주 성심학교 청각장애 야구부가 9일(수) 청와대를 방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일선학교, 청소년쉼터, 돌봄센터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아

동·청소년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 헌신하는 관계자들을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며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영화 ‘글러브’의 실제 모델들과 청각장애 야구부 학생들의 지도에 헌신해온 서문은경 교사가 참석했다.

또한 서해 5도 대청도의 섬소

년 백진성 군 등이 참석해 훈훈한 이야기가 소개됐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여러분이 있어 우리 사회가 따뜻해지고 용기를 얻는다”며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해 준 여러분께 고맙다”고 밝혔다.

또한 “옆 테이블에 야구부가 있는데 체격도 좋고 인물도 좋다”며 “내가 그 말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전해 달라”고 요청해 좌중이 웃었다.

한편, 이 자리에는 현장교사, 기간제 및 원어민 교사, 배움터지킴이, 조리사 등 학교관계자와 청소년쉼터, 아동보호센터 근무자 및 자원봉사자 등 200여명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 복지부, 장애등급판정·심사 개선 방향 제시

## ‘심사규정 개정’, ‘총론에 판정기준의 적용 원칙 신설’ 기획단 제도·총괄 및 장애판정·등록분과 거쳐야 확정

보건복지부가 현재 장애인에 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장애 등급판정 및 장애등급심사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복지부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기획단’은 지난달 17일(월) 오후 복지부 9층 대회의실에서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총괄분과 및 장애판정·등록분과’ 회의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부 장애인정책과가 마련한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안’ 검토초안, ‘장애등급심사규정 개정안’ 검토초안, ‘척수장애의 장애유형 별도 구분 검토’ 등 3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 및 결정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참석한 장애판정·등록분과 위원들이 ‘분과에서 먼

저 논의 및 결정이 이뤄야함에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 논의 수준에 머물렀다. 이 안건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장애판정·등록분과 및 제도·총괄분과의 검토와 의결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판정·등록분과 위원들은 회의 후 따로 모여 장애등급제 폐지 여부, 3가지 안건 등과 관련된 의견을 교환하고 다음 주 중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회의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의 ‘장애등급심사규정 개정안’에는 장애등급 심사결과 기존 장애등급보다 하향되어 신청인의 의견을 받아 볼 필요가 있거나, 추가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국민연금공단이 인정한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통보하기 이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등급 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전문가, 복지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장애등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심사서류 확보 및 차량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행 장애등급 판정 기준 문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장애등급 판정기준 총론’에 2종류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중복장애의 합산기준에도 불구하고, 부장애가 주장장애의 신체적 기능 등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때와 장애범주에



박은수(민주당) 의원, 곽정숙(민주노동당) 의원,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이 지난해 11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등급판정심사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해당되지 않는 다른 신체적 손상 등으로 장애정도에 영향을 미쳐 신체적 기능 등을 더 악화시킬 때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등급심사 실시를 주요 골자하는 ‘판정기준의 적용 원칙 신설’로 잡고 있다.

한편 ‘척수장애의 장애유형 별도 구분 검토’에는 2가지 과제가 제시돼 있다. 첫 번째 과제는 척수장애를 현행 지체장애에서 분류, 별도의 장애종류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절단, 관절, 기능 등과 같은 지체장애유형

안에 새로운 분류로 구분할 것인지의 여부다.

두 번째 과제는 척수장애판정을 별도 기준으로 판정할 때 지체기능장애 또는 척수손상독립성지수를 조정해 평가할지의 결정이다.

다만 복지부는 척수장애의 장애유형과 관련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기획단’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 장기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출처-에이블뉴스〉

## 성인 장애인 의무교육 받을 권리 부여

### 김상희 의원,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김상희 의원.

©김상희 의원 홈페이지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지난달 24일(월) 성인 장애인의 의무교육 받을 권리 부여를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하고,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연령을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성인 장애인의 상당수는 장애에 따른 이동의 불편, 보호자의 관심 부족, 사고 및 뒤늦은 발병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학령기 때의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인이 된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교육의무가 없는 현행법은 수정해 성인 장애인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장애인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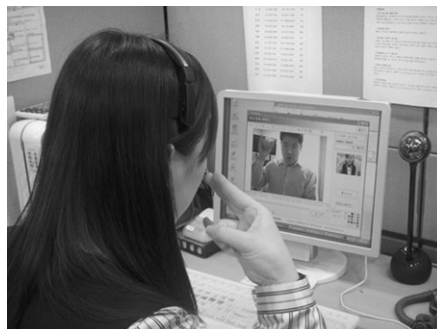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특수교육대상자는 현행 “3세부터 만 17세까지”에서 “3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특히 교육장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와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진단·평가의 과정에서도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특수교육대상자 배치를 위한 종합적 판단에 있어 특수교육대상자의 의견도 반영토록 하고 있다.

〈출처-에이블뉴스〉

## 행안부,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24시간 제공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중계사가 수화로 통신중계서비스를 하고 있는 모습.

앞으로 장애인들은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통신중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난달 25일(화) 청각·언어장애인들에게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통신중계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2005년부터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통신중계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의사전달을 중계하는 통신중계서비스를 하루 13시간(09시~22시) 제공해 왔다.

하지만 취약시간대(22시~09시)에 발생하는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상황에 대처하기는 미흡해 이번에 24시간 통신중계서비스 체제로 개편하게 됐다.

행안부는 “장애인들이 365일 24시간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안전이 크게 증진되고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통신중계서비스 24시간 제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관련 협회·단체·학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실적 추이

구분	2005(11~12월)	2006	2007	2008
중계사수(명)	3	5	14	29
회원수(명)	200	700	1,800	4,038
서비스 일수(일)	43	241	295	335
중계건수(건)	2,021	33,371	108,315	191,808
평균 통화시간	7분02초	6분42초	6분38초	6분8초
서비스 제공시간	주5일(월~금) 10:00~19:00 일일 9시간	주5일(월~금) 09:00~21:00 일일 12시간	주5일(월~금) 09:00~21:00 일일 12시간	주7일 09:00~22:00 일일 13시간
문자 영상	73:27	81:19	68:34	58:42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 사회생활 금지 ‘활동보조 지침’ 반발 거세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이하 복지부)는 지난 1월 31일(월) 서비스 신청자격 추가, 장애인등급심사 대상축소 등의 변경 내용이 담긴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지침을 발표했다.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 오는 10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의 전환 및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사업 지침은 복지부가 구상하는 활동지원제도의 본보기로 작용되는 중요한 지침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번 지침을 통해 학교와 직장내에서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지침 철회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지난 10일(목) 복지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는 서비스를 중복으로 받는 경우가 아니라도 ‘학교와 직장이라는 공간에서는 어떤 내용으로도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어이없는 유권해석과 함께 자립생활을 지원한다는 서비스의 목적을

**화장실 급한 장애인, 학교 밖에서 해결해야 할 판”**  
**복지부, “문제점 있다고 판단, 빨리 지침 수정” 밝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10일 복지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생활 금지하는 활동보조 지침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에이블뉴스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지침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현실에서 교과부 서비스는 그 양이 극히 제한적이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다수 장애학생이 교육공간에서 신변처리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도 마찬가지”라며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학교, 직장에서의 보조서비스는 교과부와 노동부가 관할해야 한다”는 복지부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업 지침의 ‘서비스

제외대상’에는 “직업생활, 교육 및 학교활동에 필요한 지원은 근로지원인(고용노동부), 특수교육보조원(교육과학기술부) 서비스를 이용해야 함.(사업주, 학교장, 이용자, 보호자 등은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은 학교 및 직장 내에서 용변해결 및 식사 등의 활동보조를 받을 수 없어 사회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또한 “지침 내

용이나 문구에 따른 해석이 지역 및 담당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의 오해와 혼란이 없도록 지침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학교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면, 학교에 다니는 장애인은 화장실이 급하면 학교 밖으로 나가서 해결해야 할 판”이라며 “결국 복지부는 ‘자

립’ 이념이 아닌, ‘요양’ 이념으로 활동보조의 설계도를 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학생지원네트워크 김형수 대표는 “지침대로라면 활동보조인과 학교 대문까지 가서 학교 안에서 특수교육보조원의 보조를 받고, 다시 학교 밖을 나설 땐 활동보조인에게 보조를 받아야 한다. 우리 장애인은 마라톤 대회 바톤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특수교육보조원 및 근로지원인은 활동보조서비스와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이 지침대로 시행한다면 복지부는 활동보조 매뉴얼을 만들어 특수교육보조원 등에게 활동보조 교육을 시키는 부담도 함께 안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빠른 시일 지침이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적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됐다. 빠른 시일 지침이 수정돼, 기존 받던 서비스와 크게 차이가 없도록 변경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출처-에이블뉴스〉

## 서울시, 장애인 51명 포함한 1192명 채용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응시원서 접수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2011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으로 장애인 51명 등 총 1,192명을 채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직급별로는 7급 177명(행정직군 135명, 기술직군 42명), 8·9급 1,006명(행정직 741명, 기술직 265명), 연구·지도직 9명이다. 이 중에는 장애인 51명(7급 6명, 9급 45명)과 저소득층 20명(행정, 사회복지 등 5개 직렬 9급)도 포함돼 있다.

올해 공채 필기시험은 수의직, 의료기술직, 지적직, 약무직, 간호직, 연구·지도직이 4월 23일, 나머지 직렬은 지난해와 같은 6월 11일 치러진다. 또한 기존 7일간이던



원서접수 철회기간은 접수마감일 후 14일간 진행된다.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비율은 자격증에 따라 기존 0.5~3%에서 0.5~1%로 축소되며,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등 일부 자격증의 가산점은 폐지된다.

원서접수는 오는 2월 28일(월)부

터 3월 4일(금)까지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gosi.seoul.go.kr>)와 서울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http://hrd.seoul.go.kr>)를 통해 가능하다.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 조치를 신청하면 점자문제지, 확대문제지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인재개발원 전형팀(전화 02-3488-2321~6)으로 문의하거나 서울시 및 서울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에이블뉴스〉

## 장애아동 성폭행 40대 ‘징역 6년’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김연하 부장판사)는 지난 달 20일 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로 기소된 송모(45)씨에게 징역 6년에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지적장애인이 피해자를 통학 시켜주며 계획적으로 접근해 환심을 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발생할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 엄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전과 3번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으며 심한 폭행이 없는 단순 위력이므로 형량 참작이 가능하나, 전체적으로 중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2009년 9.10월께 등교 중인 피해아동을 차에 태워준 뒤 수시로 용돈을 주고 먹을 것을 사주며 꾀어 같은 해 12월부터 4개월 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 서울시, 중증장애인 취업 ‘원스톱 지원’

## 취업 개발부터 사후관리까지...총 700명 지원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이하 서울시)가 경증장애인에 비해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취업 개발부터 알선,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구직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기관 연계부터 취업 알선, 사후관리 등 ‘원스톱 지원’으로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재활의지를 북돋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증장애인의 취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자리플러스센터 등 다 취업알선기관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서울시는 올해부터는 중증장애인 취업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 해 597명의 중증장애인을 취업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중증장애인 취업목표치를 700명으로 설정했다. 먼저 중증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거동이 불편한



서울시는 올해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 700명의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사진-서울시가 지난해 개최한 ‘2010 서울시 장애인취업박람회’ 모습.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택고용 가능업체 및 부업업체를 중점 개발할 계획이다.

또, 장애정도에 상관없이 20일로 균등하게 적용하던 ‘취업 전 직업현장훈련’을 올해부터는 중증장애인은 20일을 그대로 유지하고 경증장애인은 10일로 훈련기간을 단축해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에게 직업현장훈련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취업 전 직업현장훈련’은 고용알선 시 장애인의 즉시 고용

을 염려하는 사업주와의 약정을 통해 작업장에서 20일간 직업현장교육을 실시한 후 최종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프로그램이다. 2010년에는 464명의 장애인들이 참여했고 올해는 그 대상인원을 5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들의 취업 알선 뿐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책임 질 수 있도록 취업상담사가 담당했던 장애인이 장기고용을 유지할 경우 취업상담사에게 10만원씩 제공하던 인센티브를

중증장애인은 12만원, 경증장애인은 8만원으로 차등 지급해 중증장애인의 취업 후까지 철저한 관리를 할 계획이다.

현재 경증장애인은 3개월 이상, 중증장애인은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인센티브를 1회에 한해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현재 구직장애인과 구인업체에게 매우 높은 호응도와 취업실적을 보이고 있는 ‘장애학생 직장체험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학생 직장체험 및 인턴십’은 장애인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고등부 3학년과 전공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졸업 전 2개월의 직장체험기회를 제공해 사회로 나가는 학생들에게 직무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졸업 후 바로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대상인원 및 참가학교 수를 2010년 20개교 105명에서 25개교 120명으로 늘리고 횟수도 1회를 더 늘려서 7~8월, 10~11월간 2차례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아울러 4월20일 장애인의 날에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폭넓은 일자리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직을 원하는 서울시 거주 장애인은 센터 상담전화(☎1588-1954)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jobable.seoul.go.kr)를 참고하면 된다.

## 장애인생산 케익, 매출액 13억원 달성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이하 복지부)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1년 만에 ‘국방부장병 생일 쌀 케이크’ 13만여개를 납품, 13억4000만원의 매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고 지난달 31일(월) 밝혔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

아리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복지시설로, 일을 통해 가정과 사회의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중 쌀 케이크를 생산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전국 22개소이며, 쌀 케이크 외에도 각종 제과점 빵과 과자를

생산하고 있다. 현재 ‘쌀무스케익 협의체(회장 김혜정)’를 구성, 공동 마케팅과 신상품 개발 등 매출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혜정 회장(애덕의 집 원



(왼쪽부터) 딸기, 녹차, 모카 쌀무스케이크

장은 “장애인이 생산한 것이라 질이 떨어질 것이다, 떡이 겹지 하고 편견을 갖는 경우가 있어 판매에 애를 먹었다”면서 “하지만 실제 쌀 케이크를 접해본 후에는 쌀로 무스케이크를 만드는 아이디어와 고급 제과·제빵 기술에 놀랐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104% 증가된 243억원을 확보해 생산 설비 지원과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경쟁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해 이어 경영컨설팅 사업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이 직접 생산한 쌀 케익은 쌀무스케익 협의체 홈페이지(cafe.daum.net/rmcake) 또는 직업재활시설 홈페이지(www.kavrd.or.kr)에서 생상품 구매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출처-에이블뉴스〉

## 지방 복지담당 공무원 대폭 확충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이하 행안부)는 지난 9일(수) 올해 새로 총원하는 7·9급 지방공무원 1181명 중 510명을 복지담당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이는 전체 신규 인력의 ‘43%’를 복지담당직으로 총원하는 것은 복지 예산 증가와 수요 확대를 뒷받침할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며,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직접 “복지 인력 총원에 대해 각 부처가 협의하라.”고 언급하는 등 사회복지공무원 인력증원 추진을 약속한 바에 따른 것이다.

현재 읍·면·동별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는 평균 1.6명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3467개 읍·면·동 중 사회복지직이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곳은 51개, 1인이 배치된 곳은 1880개에 이른다. 2인인 곳도 1103개

나 된다.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2만 2461명으로 이중 사회복지직은 1만 335명, 행정직은 1만 2126명이다.

한편 행안부 등이 참여한 TF는 복지 인력을 확충하거나 행정직 공무원의 복지 업무 기피 현상 해소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복지 업무를 맡는 행정직 공무원에게 승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기 진작책과 퇴직 등으로 자연손실되는 인력을 복지직으로 총원하는 방안 등이 그 예다. 또 복지 인력 실태와 정확한 수요 조사도 진행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신규 복지사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력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면서 “앞으로 복지 사업과 함께 인력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 실효성 있는 장애인활동지원법을 위한 토론회

## “2급은 예비등록자로 뒤 신청·심사받게 해야”

기조발제자로 나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총장은 “예산이 먼저 통과하고, 장애인활동지원법이 만들어져 예산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장애인활동지원법이 날치기 통과가 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며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찾아줄 수 있는 ‘이의 신청에 행정심판권’ 하나만 추가됐다”고 질타했다.

또한 “정부는 1급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데 이는 복지부의 방침 이라기보단 복지부가 거역할 수 없는 기획재정부의 방침이다. 결국 예산 문제가 작용하게 된다”며 “예산이 없다고 전제해도 2급을 예비등록자로 뒤 심사받게 한다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총장은 가장 논쟁이 뜨거운 자부담 방식에 대해 “수입·수준별 등급분류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 총장은 “차차상위까진 무상, 200만원 이상은 5%, 300만원 이상은 10%, 400만원 이상은 15%로 하면 수입 1만원 차이에 의해 10만원의 자부담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그러므로 200~600만원 이상까지 15등급으로 나눠 자부담을 1%씩 증가시키는 정률제로 간다면 서비스는 적는데 자부담이 많은 경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특정 장애인에게 가족 활동보조인 허용 필요”

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광훈 소장은 활동보조인의 결격 사유에 대해 명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예전에 활동보조를 나온 중년의 여성 활동보조인이 알고 보니 사기를 치고 다니는 다단계였다”며 “장애인활동지원법에는 ‘활동지원 인력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활동지원 인력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활동지원 인력의 범죄이력 조치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최 소장은 “인공호흡기,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시행(2011년 10월)을 앞두고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문제점 확인과 대안을 제시하는 ‘실효성 있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9일(수)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장애인활동지원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의 내용에 관한 주요정보 제공과 문제점·대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지난 9일 ‘실효성 있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자부담, 대상 및 시간제한, 부양의무자 기준 등 현재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쟁점에 대한 방안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 “15등급 나눠 1%씩 자부담 증가시키는 정률제”

## “특정 장애인에게는 가족 활동보조인 허용해야”

석션기 사용, 소변줄 교체, 기도 절개 튜브 소독교체 행위에 대한 본인 및 가족 이외 사람의 처치는 준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 사항”이라며 “결국 인공호흡기 및 인공요관 사용 장애인이나 루게릭, 근디스트로피, 인공체장기 사용 장애인 등은 가족이 아닌 타인의 활동보조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이와 같은 특정 장애인은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는 가족을 허용하고 있는데,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최 소장은 ‘보조공학기구 지원’과 관련, “중증장애인에게 적절한 보조공학기구 지원은 신체장애의 경감 및 완화라는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교육과 노동의 참여를 통해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하며, 전동휠체어 및 전동침대는 활동보조서비스의 필요시간 경감과 활동보조인력의 노동 경감 작용을 한다”며 “보조공학기구 지원의 근거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젊은 활동보조인 확보 방안 연구돼야”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숙자 소장은 “사회활동이나 직장생활을 하기 위한 장애인은 대부분 젊고 유능한 2~30대의 활동보조인을 선호한다. 하지만 현재 활동보조인 대부분이 40대 이상의 여성”이라고 지적했다.

활동보조인 연령대 분포(2010년 6월 기준)를 살펴보면 여자가 17,221명으로 87.6%를 차지했으며, 40대 이상이 79.1%로 나타났다. 20~30대의 활동보조인은 20% 가량에 불과했다.

주 소장은 “결국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젊은 활동보조인 확보 방안이 연구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활동보조서비스는 가사 서비스 위주의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주 소장은 “활동지원인 교육을 총 50시간 시키고 있는데, 활동보조인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교육예산 낭비가 심하며, 이용자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활동보조인 교육을 원하는 경우도 있어 현실적으로 교육 문제점이 많다”며 “여러 문제점을 보

완하기 위해 사이버 교육이나 이용자 직접 교육 등도 교육부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소장은 “서비스 적정이용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한는데, 본인부담금 환급이나 현금 보상 등의 인센티브 제공은 결국 제공시간을 줄이려는 함정”이라며 “180시간 받던 사람이 50시간을 덜쳐서 돈으로 환급받는다면, ‘130시간만 받아도 살 수 있다’는 판정이 나와, 결국 130시간으로 고착화 시키려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 “특수근무수당 단가 인상 필요”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남인수 소장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야간 및 주말과 주간활동시간 단가가 동일해, 활동보조인은 야간 및 주말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고 있다”며 “결국 중증장애인이 야간과 주말 시간에 도움을 청할 곳이 많지 않아 위급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남 소장은 “야간 및 주말 서비스의 단가를 인상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가장 취약한 시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야간, 응급상황 등의 긴급지원서비스와 상담서비스 등의 특례지원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지원서비스와 같은 생산적 복지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 “자립생활센터 우선 서비스 기관 지정되도록 해야”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동식 소장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추가 지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우선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자립생활센터가 해당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도록 지원기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과 함께 이를 근거로 한 자립생활센터 지원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소장은 “이제는 법의 개정 에 포커스를 두고 움직일 수 있도록 자립생활센터가 대동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 “서비스 시간 축소될 것”

사하두바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수철 소장은 “현재 급여에 추가로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가 포함되더라도 추가 서비스에 맞춰 급여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급여량에 서비스만 추가될 것”이라며 “서비스 종류는 다양해질 수 있으나, 결국 이용시간이 줄어들어 장애인에겐 시간 축소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 “가족 지원하면 새로운 구속의 연장선 될 것”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재익 소장은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자립적 삶을 원하는 장애인은 가족이 활동보조인을 하면 안된다. 이는 새로운 구속의 연장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소장은 “자립생활의 포인트는 자립생활의 틀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활동지원법과 자립생활센터지원법이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 장애아들 대학 졸업시킨 어머니의 감동 사연

윤경애 씨, 장애 아들과 4년 대학생활 함께 해

안지형씨 “어머니 주신 사랑, 더 힘든 분과 나눌게요”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됐지만 불굴의 투지로 학사모를 쓰게 된 아들과 4년동안 대학을 함께 다니면서 뒷바라지를 한 어머니의 감동사연이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있다.

사연의 주인공은 지난 11일(금)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안지형씨(26·뇌병변장애 2급)와 어머니 윤경애씨(52). 윤씨는 이날 한남대 졸업식에서 ‘위대한 어머니상’과 사회복지학과로부터 명예 졸업장을 수여받았다.

어머니 윤씨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장애아들 안씨를 부축하고 한남대를 4년동안 다녔다. 강의실을 이동하면서 턱을 넘어설 때는 무거운 전동휠체어를 힘겹게 밀어야 했고 강의실 책상에 아들을 앉힐 때도 학생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또한 어머니가 직접 몸이 불편한 아들을 대신해 강의내용을 대필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는데 불구하고 아들을堂堂히 사회복지사로 만드는 인간승리를 이뤄냈다.

아들 안씨가 장애를 갖게 된 것은 지난 2001년 10월 충남계룡시 용남고 1학년 재학시

절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과속으로 달리던 자동차에 충격을 받으면서 발단이 됐다. 안씨는 “쿵” 소리와 함께 37m를 날아가 떨어졌다. 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안씨는 3개월 동안 의식이 없는 혼수상태였다. 병원에서는 “살아난다고 해도 식물인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들이 뇌수술 2회를 비롯해 수많은 수술을 받고 뇌병변장애 2급까지 판정받았지만 병원에서부터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다. 걷지도 못하고 팔도 잘 쓰지 못하고, 말도 어눌해진 아들 안씨는 학교로 돌아갈 수 없고 이제 공부와의 인연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니는 아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한자 책을 주고, 노트북을 사주고 계속 공부를 하도록 독려했다. 그것이 바로 재활치료라고 생각했다.

어머니 윤씨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사람에게 치유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앞으로 사람들과 어울려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라고 지난 시절을 회상했다. 무려 4년간의 입원 재활치료

를 피나는 노력 끝에 안씨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나섰지만 고교에 복학하는 것은 포기했다. 장애인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검정고시로 고교 졸업자격을 얻었고, 2007년 3월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다.

이후 어머니와 아들은 4년 동안 등교를 같이 했다. 다행히 대전시 장애인 콜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교통문제는 해결이 됐다. 그러나 전동 휠체어를 타도 강의실 의자에 앉기까지 어머니의 부축이 필수적이다. 또한 필기가 다른 학생들처럼 빠르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가 과제 등 중요한 내용을 아들을 위해 적어주기도 했다.

안씨가 전공과목들을 들어야 할 사회과학대학 2층 강의실들은 휠체어를 타고 출입할 수 있었다. 교양과목은 공대, 이과대, 문과대 등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휠체어 출입이 자유로운 강의실들에서 주로 들어야 했다. 처음에는 친구들을 사귀기 어려워 외톨이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MT도 함께 가고 식당에 밥도 같이 먹으려

다니면서 점점 친해질 수 있었다. 선후배들은 강의실에서 안씨를 부축해 주고 학업을 도와 주기도 했다.

안씨는 현재 사회복지사 2급, 워드프로세서 2급, 요양보호사 자격증 등을 취득했고 지금도 각종 자격증에 도전하고 있다. 그의 꿈은 사회복지 시설에 취업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이유도 그래서이다. 또한 글쓰기를 좋아해서 소설이나 게임 시나리오 등을 써보고 싶다고 했다.

대학졸업이란 기적을 이룬 그는 이제 제2의 기적을 꿈꾸고 있다. 어머니의 부축을 받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걷는 꿈이다.

안씨는 “한때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도 했지만 이제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도 많은 사실을 깨달았다”며 “육체적인 도움이 아니라 그들

을 정신적으로 도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애가 없으면 물론 좋겠지만, 없을 순 없으니 그걸 받아들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덧붙였다.

어머니 윤씨도 “더 나아질 수 있는데 재활노력이나 공부를 포기하는 젊은 장애인을 보면 안타깝다. 남보다 더디어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으면 좋겠다”고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 조언했다.



2011 한남대 학위수여식에서 명예졸업장을 받는 윤경애 씨(왼쪽)가 9일 교정에서 아들 안지형 씨(오른쪽)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시각장애 윤가람씨, ‘서울대 국악과’ 합격

청각으로 저시력 극복...판소리 전공 선택

2011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특별전형으로 시각장애 학생이 합격해 화제가 되고 있다.

그 주인공은 서울대학교 음대 국악과에 당당히 합격한 윤가람(21세, 여, 시각장애 3급)씨, 그녀는 자신을 “판소리를 사랑하는 평범한 학생”으로 소개한다.

윤 씨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는 한 대안학교에서 중·고교 시절을 보냈고 고교 2학년 여름에 가야금 병창을 배우면서 국악에 첫발을 디뎠다.

보통 크기의 글씨는 읽기 어려워서 책을 A3나 B4 크기 용지에 확대 복사해 공부했다. 저시력은 오히려 그녀가 음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윤씨는 “드라마틱한 것 없다. 판소리가 너무 하고 싶어서 전공으로 선택했고 입학까지 하게 됐다”며 “국악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실력을 갈고 닦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학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장애학생을 뽑는 특별전형으로 들어갔지만 어려움을 극복해서 비장애 학생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래야 앞으로 나 같은 장애학생이 입학할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지 않겠나”라며 밝게 웃었다.

## 국회도서관 첫 장애인 ‘1급 공무원’ 탄생

고인철 씨, “특별대우 바란 적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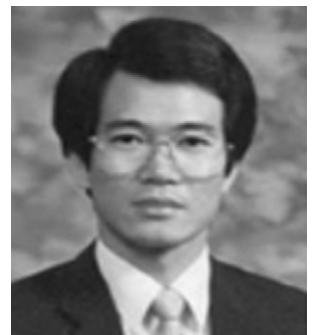
9급 사서(司書)직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4급 지체장애인이 공무원 최고위직인 1급(관리관)이 됐다. 지난달 24일(월)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으로 승진한 고인철(55)씨, 국회도서관 330여명 직원 중 1급은 고인철 씨 한 명뿐이다.

그가 1981년 9급 사서직으로 처음 국회도서관에 들어온 것은 일반 기업의 차별 때문이었다. 그는 “4살 때 온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다리가 불편해졌는데 기업체에 여러 번 시험을 봤지만 장애인이라서 번번이 탈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은 장애인을 차별하지도, 특별하게 대우하지도 않으니 실력으로 맞서자는 마음으로 도전했다. 하지만 정부 부처 중 한 곳에서는 합격했는데도 장애를 문제 삼아 탈락시킨 일도 있었다”고 지난 시절을 회상했다.

9급으로 출발했지만 꿈은 멈추지 않았다. 이듬해 처음 실시된 입법고시 사서사무관(5급)에 도전해 합격했다. 그는 “1978년부터 고시를 목표로 공부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근무했다. 그는 “31년 공



고인철 씨.

직생활 동안 장애인이라서 혜택 받은 것도, 차별 받은 것도 없다”며 “장애인을 이유로 ‘특별대우’를 바란 적은 없다. 원하면 숙직에서 빼준다고도 했지만 사양했다. 걸음걸이가 다소 불편할 뿐, 다른 직원과 다르다고 생각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는 지난 1월 20일(목)부터 21일(금)까지 1박 2일간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2011년 신년인사회 및 전국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의 지장협 장애인지도자들이 신묘년(辛卯年) 새해를 맞아 서로 교류하며 협회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480만 장애인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도약하는 2011년을 만들기 위해 다짐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본지는 '풍요롭고 희망찬 2011년'을 위한 지장협 전국 지도자들의 열정과 결의로 가득했던 「2011년 신년인사회 및 전국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의 장면을 화보로 담아보았다.



김정록 중앙회장과 내외빈들이 「2011년 신년인사회 및 전국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의 행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중앙회 및 전국 16개 시·도협회가 입장하고 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견휘 수석 부회장이 「2011년 신년인사회 및 전국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의 개최를 선언하고 있다.



국민 의례.



김정록 중앙회장의 개회사.



환영사-부산광역시청 박호국 복지건강국장(왼쪽, 부산시장 환영사 대독), 김광표 부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장(오른쪽).



축사-한나라당 장애인위원장 이정선 의원(왼쪽),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최고위원(오른쪽)



김정록 중앙회장과 대회에 참석한 지도자들이 서로 덕담을 건네며 신년인사를 나누고 있다.



한나라당 원희목 국회의원(당대표 비서실장)이 "리더쉽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김정록 중앙회장, 시·도 협회장, 내외빈들이 희망찬 2011년을 기원하는 건배를 하고 있다.



김정록 중앙회장이 “2011년, 지장협이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부산시청 김영기 도시정비담당관이 “꿈과 열정”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강의를 경청하고 있는 전국의 지장협 지도자들.



교육이 끝난 후 마련된 저녁 만찬 시간에서 김정록 중앙회장이 지역 협회 지도자들을 찾아 격려하고 있다.



저녁 만찬 시간에 마련된 장기지랑.



장기지랑의 최고상인 '화합상'을 수상한 서울특별시지장애인협회.



행사의 두 번째 날인 1월 21일, 김정록 중앙회장이 「2011년 신년인사회 및 전국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의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전국의 지장협 지도자들이 자신의 촛불을 높이 들고 '만남'을 합창하며 행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 팔없이 하늘을 조종하는 제시카 콕스 !!



세계 최초로 두 발로 비행기를 조종하는데 성공한 제시카 콕스



그녀는 비장애인과 똑같은 자동차를 두발로 운전하고 있다

## 내 이름은 제시카 콕스 (Jessica Cox)

한 대의 경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푸른 하늘을 가르는 비행기는 마치 유랑이라도 하는 것처럼 여유 있어 보입니다.

잠시 후, 비행기는 지상으로 착륙하고 조종석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감탄사가 들려옵니다. 그 비행기를 조종한 사람이 아주 젊고 예쁜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젊고 예쁜 여자는 두 팔이 없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제시카 콕스 (Jessica Cox, 25). 지금부터 세상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강한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 내 손이 되어준 다리

의사조차도 제시카가 왜 팔이 없이 태어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출생 전 실시한 초음

파 검사도 그녀의 모습을 감지해내지 못했습니다.

제시카가 태어난 날. 의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의 부모는 기쁨과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시카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제시카의 부모는 무엇보다 '교육'과 '자립'에 모든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제시카는 이런 부모의 노력에 힘입어 학교 공부는 물론이고 제시카는 발을 이용해 밥을 먹는 법과 글을 쓰는 방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비장애인 친구들과 같이 수영, 체조, 탭댄스 등의 많은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10살이 되던 해에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해, 14살 때 '검은띠'를 따냈으며 대학 시절까지 태권도를 연마하며 현재 공인 2단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다리로만 이뤄낸 것입니다.

## 또 다른 도전

대학에 합격하고 첫 등교를 하는 날, 제시카는 자립의 정도를 좀 더 높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신의 발로 필기를 하고, 컴퓨터 키보드를 치고, 콘택트렌즈를 끼우고, 머리를 말리며 스스로 아침을 차리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끝없는 연습과 시행착오가 지금의 그녀를 있게 한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현재 1분에 25개의 단어를 칠 수 있다고 합니다.)

제시카는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자동차가 있다는 소식에 용기를 얻고 운전면허증 취득에 도전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을 바꿔 자신의 장애등급에 맞는 면허가 아닌 비장애인과 똑같은 '일반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물론 자동차도 그녀의 신체장애에 맞게 개조된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입니다. 처음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엔 그녀의 신체에 맞게 고안된 특별한 변속기 등이 장착된 개조된 차를 구입했지만 그녀는 그 특별한 장치를 없애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이라는 도전에 성공한 제시카의 눈은 '하늘'로 향하게 됩니다. 어느 날 문득 제시카는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유유히 구름을 가르며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처럼 나도 하늘을 날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제시카는 비행학교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비행학교에서는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비장애인도 해 내기 쉽지 않은 비행기 조종을 장애인인 제시카가 하기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그들이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결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관계자들을 설득했고 그녀의 노력의 결과로 그녀는 결국 비행교습을 받게 되었고 지난 5월 처음 단독 비행에 성공하게 됩니다. 3년이라는 길고 긴 교육을 모두 이겨내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0일, 제시카는 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미연방항공청) 감독관이 함께 동승한 테스트에 통과하며 정식 비행면허를 획득했습니다. 특히 공중에서의 난기류를 능숙하게 극복하며 감독관으로부터 '최고'라는 찬사를 이끌어내며 세계 최초로 두 발로만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된 것입니다.

## "나는 아직까지 해보지 않았을 뿐!"

제시카의 이런 성공의 열쇠는 바로 그녀의 마음가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한번도 "나는 할 수 없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비장애인은 6개월이 걸리는 교육과정을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3년 동안 받아야 했지만 그녀는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직 해보지 않았을 뿐, 이겨낼 수 있는 일"이라고 다짐하며 그녀 앞을 가로막은 벽들을 그렇게 하나씩 넘었던 것입니다.

콕스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다른 장애인들도 하늘을 날 수 있도록 특수한 비행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할 수 없을거야'라는 지레짐작으로 접었던 꿈은 얼마나 될까요? 그 동안 얼마나 많은 기회를 포기하며 살아 왔을까요? 세상은 도전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감한 도전과 열정 없이 포기한, 그래서 가지 못했던 길을 나중에 후회만 하고 있지는 사람에게 이런 제시카의 이야기는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기사는 새보람 '제196호 (2009년 1월)'에 게재된 기사로, 독자 여러분들의 요청에 의해 다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편집자주>



유년시절의 제시카 콕스



태권도 공인 2단인 제시카 콕스



장애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두 다리'로 당당히 일어난 제시카 콕스



# 2011년 달라지는 새보람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에서 매월 발행하고 있는 장애인신문 '월간 새보람'의 편집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10년 새보람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결과를 지난 1월 '새보람(제220호)'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독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해 새보람의 지난날을 평가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뜻 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애정 어린 질책과 격려를 해주신 독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지는 '2011년 새보람'의 변화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 ■ 2011년 달라지는 새보람

### ① 종이 질 '업그레이드'

- 만족도 조사를 통해 많은 독자여러분들께서 새보람 용지의 질을 높여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를 반영해 기존 46g 용지를 54g 용지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 ② 장애계 관련 이슈, 정보 제공 확대

- 장애계 관련 정보, 이슈, 복지정보가 만족도 조사의 '2010년 가장 즐겨보았던 기사'와 '2011년 더욱 중점적으로 다뤄야 하는 기사' 항목의 상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장애계 관련 이슈, 정보(복지정보)의 지면수를 확대하겠습니다.

※종합 : 기존 2~3면에서 4면으로 확대, 복지정보 : 최소 2면 이상

### ③ 우리들의 이야기

- 우리 주변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물론, 사람들 간의 따뜻한 세상사는 이야기를 독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 ④ “독자에, 독자에 의한, 독자를 위한 신문”

- 독자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새보람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전국의 독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 새보람이 진정한 480만 장애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 독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해 주십시오. 세상사는 이야기, 정책 비판 및 제안을 비롯해 그 어떤 주제도 새보람은 환영합니다. 원고는 매달 8일까지 이메일(hambaknun30@nate.com)이나 팩스(796-4281)로 보내면 되고, 기사로 채택되는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 ⑤ “메일링 서비스 실시”

- 새보람은 매달 15일 발행되는 월간지이며 독자 여러분의 집까지 배송되기까지는 최소 일주일(7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좀 더 빨리 새보람을 보고 싶으신 독자께서는 새보람 '메일링 서비스(메일 전송 서비스)'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링 서비스 신청 : 이메일(hambaknun30@nate.com), 팩스(796-4281)

문의 : 홍보협력팀 이현일 ☎ 02)2289-4381, hambaknun30@nate.com

새보람을 사랑해 주신 독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480만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장애인복지의 길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은 신문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KAPPD 법인 Korea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 공단, '장애인표준사업장 사업주' 모집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이하 장애인공단)이 1월 25일(화)부터 한 달 동안 '2011년 장애인표준사업장 사업주'를 모집한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상시근로자수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근로자의 50%(30% 초과인원은 25%)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 '장애인·노인·임상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며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지난 2002년 제도가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총 86개 사업장에 2,147명의 장애인이 고용돼 일하고 있다.

## 법인·소득세 50% 감면 혜택



국내 최초의 장애인표준사업장 '포스워드'.

특히 올해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세액감면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오는 2013년 말까지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는 사업주는 인

정년도가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세액감면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법인

세·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정서와 함께 세액감면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시설자금 융자금 76억원 및 장애인시설장비무상지원금 14억원 규모로 지원, 장애인고용을 창출하고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융자금 32억원을 지원,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유지에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고령자 고용환경개선 융자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에이블뉴스〉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8% 인상



지난 해 7월 22일 서울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서울시장과의 현장대화' 행사에서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사회복지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오세훈 시장.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이하 서울시)는 올해 시에서 인건비를 대는 1천52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9천여명의 기본급을 8% 인상했다고 지난 1월 23일(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기본급은 2004~

2008년 매년 5% 인상됐으나 세계 경제위기 여파로 지난 2년간 동결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 여건이 저소득층 복지 수혜자에 대한 서비스 질과 직결되는 만큼 긴급재정임에도 인상 폭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 종사자 9천880명의 인건비로 지원되는 예산은 2천89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08억원 늘었다.

서울시는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올해 공무원 보수 대비 평균 90.4% 수준인 종사자의 보수를 2014년까지 공무원의 95%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임금수준이 낮은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 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올해부터 5억7천여만원을 들여 매달 3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보수 현실화 노력이 복지현장에서 시민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수원시,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경기도 수원시는 이달부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한다고 지난 7일(월) 밝혔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서비스'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만 6~65세 1급 장애인들에게 이동보조와 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관내 1급 장애인에게 매월 40~18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원시간 부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있어 추가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00시간의 지원을 받는 바우처 1등급 장애인, 특례 120시간 및 180시간 지원을 받는 홀로 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활동보조서비스를 매월 20시간씩 추가 지원한다.

## 대전, 문화원에 '장애인문고' 운영

대전학생교육문화원(원장 윤문학, 이하 문화원)이 지체장애로 인해 교육문화원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희망도서를 가정과 직장으로 배달해주는 '장애인문고'를 운영한다고 지난달 14일(금) 밝혔다.

장애인문고는 대전시 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만 운영되며, 홈페이지에 장애인문고 가입신청 후, 서류(복지카드 사본 1부, 사진)를 제출하면 된다.

대출자료는 일반 및 아동도서로 대출권수 및 기간은 개인 1회

10권 30일, 단체 1회 30권 60일로 신청할 수 있고 희망도서는 택배로 대출과 반납을 할 수 있다. 택배비는 교육문화원에서 부담한다.

또한 방문대출을 통한 다양한 독서기회 제공으로 정보격차 해소 도모와 찾아가는 적극적인 봉사로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 접근성 향상과 더불어 책임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문고 이용은 대전학생교육문화원 홈페이지(www.djsecc.or.kr) 또는 전화(042-229-1455)로 문의하면 된다.

## 충남,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실시

### 중증 장애아동 대상...연중 신청 가능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가 올해 2억6000만원을 투입, 101명의 장애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고 지난 7일(월) 밝혔다.

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1~2급 중증 장애아동에게 제공된다. 장애아동의 보호자등이 돌봄서비스를 요청하면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가 파견된다.

돌보미는 장애아동에 대해 연 320시간 동안 학습·놀이 활동,

안전·신변보호, 외출 지원, 응급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 희망자는 연중 해당 거주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올해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자가 대폭 확대돼 장애아동 양육 가정의 돌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면서 "서비스의 질을 높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에이블뉴스〉



# 천안, 장애인 ‘운전면허’ 비용 지원

## 24명 대상...취득 비용 50%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시장 성무용)가 올해 1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장애인 24명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1~5급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6급 장애인으로 신청일 현재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운전면허 취득에 결격사유가 없는 장애인(도로교통법 시행령 42조)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학원에 등록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뒤, 관할 거주 읍·면·동주민센터에 지원비를 청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동에 어려움



천안시는 24명의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이 있는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해 새로운 희망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많은 장애

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광주,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확대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올해 시비 11억원을 확보해 중증장애인(1급)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한다.

현행 중증장애인(1급)은 월 40~100시간을 지원받고, 독거장애일 경우에는 월 10~80시간을 추가로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보호자가 보호능력이 없는 초등학교이하, 2급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일 경우 보호자가 있다하여 추가지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는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 사회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시 자체사업으로 보호능력과 상관없이 보호자가 있다하여 추가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40시간 추가지원, 65세 이상자 중 노인요양급여에서 탈락한 장애인에게는 월 10시간을 추가 지원한다.

## 경남, 장애인 ‘주차단속 도우미’로 채용

경남도는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장애인 100명을 ‘주차단속 도우미’로 채용한다고 지난달 23일(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18개 시군별로 5~8명을 모집한 뒤 오는 3월에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경남에 거주하는 20~65세의 등록 장애인이며, 선발된 장애인들은 2인 1조로 편성돼 주 5일 하루 5시간씩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단속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불법주차 적발 시 차량의 사진을 촬영하고 단속 일시와 장소 등을 신고서에 작성

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다. 해당 시군은 신고 자료를 검토한 뒤 건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들은 4대보험 가입 혜택과 함께 월 52만원 정도의 급료를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처럼 많은 장애인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단속 도우미로 활용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밝히며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주차질서 확립과 과태료 부과에 따른 지방세 수입 증대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 포항시, 무료 장애인전용목욕탕 개소

### 경북 최초...장애인 편의시설 구비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전용목욕탕이 문을 열고 개소식을 가졌다. 사진은 테이프커팅하는 모습. ©포항시/청

경북 최초로 포항시에 장애인전용목욕탕이 문을 열었다. 시는 5,500만원을 들여 일반 목욕탕에 핸드레일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과 샤워용 휠체어 등을 설치해 장

아인전용목욕탕을 만들었다. 특히 장애인전용목욕탕에서는 목욕장비 및 용품을 지원하고,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이용 시 차량도 지원해준다.

여기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목욕 도움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남·녀 각 4개조 70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이 대기하고 있다. 봉사단은 입욕 전 혈압체크와 목욕봉사 등 편의를 제공한다.

포항에 사는 등록장애인은 장애유형이나 등급에 관계없이 무료로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 보호자 1명도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이용 당일 목욕탕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사전에 포항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전화(054-282-4009) 접수하면 된다.

※장소: 명지탕(포항시 북구 두호동 217-3번지)

## 전북, 시설 퇴소자에 1천만원 지원

전라북도는 장애인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장애인 가구당 1천만원씩을 지원한다고 지난 달 29일(토) 밝혔다.

이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

하는 제도로 도는 우선 10가구 이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 뒤 퇴소자의 수요 추이에 따라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장애인들이 생활시설에서 퇴소하기를 희망해도

주택 임대보증금과 자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용품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장애인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문의는 도 복지여성보건국사회복지과 장애인일자리담당(☎063-280-2408)으로 하면 된다.

## 울산시, 장애인 5명 포함 총 81명 채용

울산광역시가 장애인 5명 등 총 81명 규모의 ‘2011년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을 확정, 지난 9일(수)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모집인원은 7급 3명(행정7급 등 2개 직류), 8·9급 77명(행정9급 등 12직류),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임용시험(행정) 1명이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특별임용시험을 제외하고 행정9급 3명, 사회복지직9급 1명 등 4명을 선발한다.

응시자격은 2011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가 울산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 응시연령은 7급 20세 이상, 8·9급 18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중증장애인 특별채용 응시 기준은 장애유형별 2급 또는 3급 이상이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3급 이상이다. 또한 시험은 별도로 실시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원서접수는 8·9급의 경우 오는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7급은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울산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하면 된다. 필기 시험은 8·9급 5월 14일, 7급 10월 8일 각각 치러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총무과 인력개발담당부서(052-229-2441~6)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에이블뉴스〉





# 올해 62개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

## 장애인공단, ‘신규채용 계획’ 조사 결과

올해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248개 공공기관 중 62개 기관이 장애인을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이하 장애인공단)은 26일 공공기관 대상 ‘장애인 신규채용 계획’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62개 기관의

올해 채용 규모는 4000명이며, 이중 가산점 부여와 구분 모집 등을 통해 장애인을 채용할 예정이다.

680여명 채용 계획을 갖고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등 5개 병원은 교수, 의사, 간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을 우대 채용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원 등 11개 연구소의 채용

규모는 320여명이며, 이중 전형별 가산점부여 등을 통해 장애인을 우대 모집한다.

중소기업은행 등 9개 기관에서는 90여명의 장애인을 구분 모집해 채용한다.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청년인턴 400여명을 포함해 행원, 사무원, 비서, 전화상담원 등 900여명의 신규채용에서 장애인 우대와

함께 장애인 전화상담원 10명을 별도로 뽑는다. 한국산업은행도 행원, 사무직원 등 전국 55명의 채용계획에 장애인을 포함시켰다.

한국남동발전(주) 등 14개 기관은 460여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할 계획이며, 장애인 가점 부여 및 일정비율 채용 등을 통해 우대할 방침이다.

장애인공단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우대채용과 같은 노력은 장애인에게 다양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간부분의 장애인고용 또한 견인하는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장애인공단은 장애인 미고용 및 저조 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의무고용이행 및 고용확대를 위한 직무분석, 고용개발진단 등 통합지원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훈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출처-에이블뉴스〉

# 진수희 장관, 장애인생산품 제조현장 방문

## 품질 및 생산능력 향상 당부...지원 강화 약속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달 26일(수) 경기도 파주 장애인 생산품 제조 현장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에덴하우스(경기도 파주 소재)를 방문, 제품의 생산능력 및 품질 향상을 당부했다.

올해부터 공공기관은 품목 관계없이 총 구매금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우선구매품을 종이컵, 화장지 등 18개 중증장애

인생산품으로 한정하고, 품목에 따라 5~20%를 우선 구매해야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가 지난해보다 약 2배에 달하는 최대 5,000억원까지 확대되고, 중증장애인의 일자리와 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진 장관은 “수요 증가에 발맞춰 직업재활시설의 확충과 작업환경개선을 위해 지

난해 예산 119억 원 대비 104% 증액된 243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직업재활을 통해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갖고 사회참여를 함으로써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사는 것이야말로 장애인복지의 꽃”이라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또한 직업재활시설 담당자, 에덴하우스 종사자, 근로장애인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에덴하우스 임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진 장관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중증장애인 우선구매가 잘 정착되도록 좀 더 노력할 것”이라며 “직업재활시설도 온정주의적인 보호 속에 안주하지 말고 ‘에덴하우스’

처럼 적극적 경영과 아이템 발굴로 근로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올려주는 모범적인 시설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에이블뉴스〉

### ● 고용정보

	업종	업 체 명	근무지	연령	성별	근무내용	급여	보험	연락처	담당자
1	생산직	정립전자	서울시 광진구	55세이하	무관	PCB조립업무	월 902,880원	4대보험	02-2289-4322	손가람
2	사무직	정립전자	서울시 광진구	35세이하	여	사무업무	월 902,880원	4대보험	02-2289-4322	손가람
3	생산직	광림산업	경기도 안산시	40대이하	남	프레스 및 보조업무	월 13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손가람
4	경비직	인덕종합관리	서울시 마포구	65세이하	남	아파트경비직	월 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손가람
5	경비직	국제안전시스템	서울 전역	68세이하	남	아파트 경비 및 보안	월 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한은희
6	미화직	유전실업	서울 전역	68세이하	여	건물 및 은행 미화	월 8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한은희
7	미화직	고잔병원	경기도 안산시	60세이하	여	병원미화직	월 10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한은희
8	생산직	씨피엘	경기도 안산시	40대이하	무관	제품검사 및 사출 조립	월 902,880원	4대보험	02-2289-4321	한은희
9	경비직	티지엠	서울시 양천구	65세이하	남	아파트 경비원	월 10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한은희



# ‘의족 스프린터’ 비장애 선수와 대결 선언

## 피스토리우스, 2012년 런던올림픽 목표

‘의족 스프린터’로 유명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오스카 피스토리우스(Oscar Pistorius, 24세)가 올해부터 일반 선수와 본격적인 기록 대결을 선언했다.

피스토리우스는 지난 2일(화, 한국시간)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올해 5월부터 유럽에서 열릴 각종 육상대회에 출전한다. 400m를 포함해 15번 레이스를 치를 예정이고 그중 12차례 일반 선수와 기량을 겨룬다”고 밝혔다.

태어난 지 13개월이 지난 무

렵부터 양쪽 다리를 못 써 탄소 섬유 재질의 보철 다리를 붙이고 희망의 레이스를 벌여온 피스토리우스는 ‘블레이드 러너’라는 애칭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무대에서는 경쟁자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독보적인 지위를 굳혔고, 지난주 뉴질랜드에서 끝난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주최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는 200m와 400m, 400m계주에서 금메달, 100m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무대에도 도전했던 피스토리우스는 당시 개인 최고기록을 46초25까지 줄였지만 올림픽 400m 출전 A기준기록(45초55)에 불과 0.7초가 모자라 아쉽게 뜻을 이루지 못했다.

피스토리우스는 “주종목인 400m에 초점을 맞추겠다. 유럽대회에 참가할 5월부터 9월까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육상 시즌 시작을 밝혔다.

한편 피스토리우스가 2012년



비장애 선수와의 기록 대결을 선언한 ‘의족 스프린터’ 오스카 피스토리우스의 역주 모습.

런던올림픽 출전권을 따내면 장대를 밟는 첫 육상선수로 기록 애를 지닌 선수로는 올림픽 무

된다.

## ‘박재동 화백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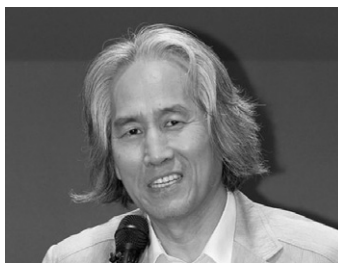
### 곰두리축구단 후원 목적…28일까지

뇌성마비장애인 곰두리축구단 후원을 위한 ‘박재동 화백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전’이 2월 9일(수) 서울시종로구 갤러리 자인제노에서 열렸다.

오는 28일(월)까지 열리는 사랑 나눔전에는 박재동 화백의 ‘달빛마저 빨간 꽃’, ‘진달래 꽃길 여인’, ‘우리 딸래미’ 등 80

여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또한 고무밴드, 박재동 기타연주, 현대무용가 김남식의 특별공연도 병행된다.

한편 전시작가 박재동 화백은 서울대학교 회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뒤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뇌성마비장애인으로 구성된 ‘곰두리축구단’을 지원하기 위한 전시회를 연 박재동 화백.

## 장애인문화진흥회, “한국장애예술인총람” 발간

### 이희양 양 등 장애예술인 및 단체 수록

장애인문화진흥회(회장 방귀희, 이하 진흥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국내 최초로 ‘한국장애예술인총람’을 발간했다고 지난 7일(월) 밝혔다.

한국장애인예술총람에는 문학, 예술, 미술, 음악, 공연, 방송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장애예술인 199명과 장애인문화예술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67곳이 수록돼 있다.

장애예술인 중에는 네손가락

의 피아니스트 이희아, 가수 조덕배, 동양화 구족화가 오순이씨, 한 손 마술사 조성진, 시인 김옥진,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 성악가 최승원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 진흥회는 “한국장애예술인총람은 장애인예술을 활성화시키는 수단이며, 최고의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출처-에이블뉴스〉

## 탠덤사이클 김종규·송종훈, 코카콜라체육대상 영예

### 우수장애인선수상 수상…어울림체육 성장 가능성 보여

‘2010년 광저우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관왕에 빛나는 탠덤사이클 김종규·송종훈(부산지방공단스포원)이 지난달 27일(목) 오전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코카콜라체육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장애인선수상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이들은 장애인(시각)과 비장애인 통합종목인 탠덤사이클에서 우수한 기량으로 어울림체육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점 등을 높이 평가 받았다.

탠덤사이클은 2명의 선수가 조를 이뤄 함께 자전거를 타는 장애인사이클 종목이다. ‘파일럿’이라고 불리는 비장애인 선수가 앞좌석에, 뒤에는 시각

장애인 선수가 탑승한다. 전방 ‘파일럿’에 의해 방향조정이 가능하고, 두 선수가 힘을 합쳐 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호흡이 중요하다.

김종규 선수는 소감을 통해 “응원해주 가족과 주위 분들, 감독·코치님들에게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좋은 결과를 가져 온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코카콜라체육대상 우수장애인선수상은 2005년 신설됐다. 그동안 사격의 허명숙, 수영의 김진호, 양궁의 이흥구, 육상의 유병훈, 휠체어컬링대표팀, 아이스슬레지하키 정승환이 수상한 바 있다.

〈출처-에이블뉴스〉

## 탤런트 이연희, 사진전 ‘TIME’ 개최

### 수익금 장애인에 전액 기부

배우 이연희가 무료 사진전을 열어 장애인 돕기에 나섰다. 이연희는 지난 11일(금)부터 13일(토)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올림픽스퀘어에서 ‘TIME’이라는 테마로 사진전을 개최했다.

이연희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평소 사진에 관심이 많았던 이연희가 바쁜 활동 가운데 직접 찍은 사진들과 함께 미공개 화보 사진, 셀카 사진 등을 사진전을 통해 공개하게 됐다”며 “사진 판매 수익금은 전액 장애인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전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전시된 사진들은 사진전이 끝난 후 디앤샵을 통해 판매된다. 전시회 개막일인 11일 저녁 8시에는 현장에서 이연희의 생일파티를 겸한 팬미팅 행사도 마련됐다.

한편 이연희는 현재 SBS 월화극 ‘파라다이스 목장’에 출연하고 있다.



사진전에 전시된 이연희 씨 사진.

©SM엔터테인먼트



## 정 책 건 의

오득성 (65세, 男, 지체장애1급)

##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드리는 탄원서”

존경하는 진수희장관님과 국회의원들께 저의 소원을 건의 드립니다.

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오득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1989년 4월 29일 무보험·무면허 뺑소니 덤프트럭에 사고를 당해 보상도 못 받고 경추 5-6번이 골절돼, 목 밑으로는 손가락하나 쓸 수 없는 전신마비 1급 지체장애인입니다.

자식들이 있어 부양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도 안 되고, 현재 합병증인 희귀난치성질환에 의한 차상위로 선정돼 의료비 혜택만 받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매월 보내주는 생활비 30만원으로 아내와 함께 절약하며 20여년을 살아갑니다.

20여년을 누워서 지내다 보니 희귀성질환인 강직성척추염(요추 4-5번 진행 중), 대퇴부골절과 석회·방광염·당뇨·혈압·육창 등의 여러 합병증이 왔습니다. 이에 종합병원과 보건소 등에서 약을 처방받아 먹으며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갑니다.

있습니다.

특히 강직성척추염이 급성으로 인해 목까지 진행된다면 척추가 대나무 같이 굳어 머리를 좌우로 돌릴 수도, 겨우 앉을 수도 없는 상태가 돼 죽을 때까지 방에만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살다가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앞으로 나이가 점점 더 많아지면 지금보다 합병증도 많아질 것이고 병원가는 것조차 거동이 힘들어지면 응급상황이 생겨도 제때 치료받지 못하며, 생명도 그만큼 단축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더 이상 고통 속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사고 이후부터 우울증이 올 때마다 세상사는 게 허무하고 모든 게 귀찮습니다.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고 모든 생활을 혼자서 할 수 없는 몸으로 죽을 때까지 아내와 자식 고생시키며 고통 속에 살 생각을 하니 죽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존경하시는 진수희 장관님과 국회의원들께 저의

소원을 건의 드립니다. 현재 우리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65세까지만 서비스를 받도록 돼 있고 만 65세가 넘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만 65세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그냥 집에서 서비스 없이 지내든지 해야 합니다.

저는 평생을 꼼짝 못하고 누워 지내야 하는데, 그나마 월 18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으며, 만족은 못해도 불편을 감수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노인장기요양으로 변경해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은 말 그대로 노인성질환환자 즉 중증치매나 뇌경색환자들을 요양원 시설에서 격리 또는 가정에서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에 따라 최하 3등급은 월80시간(하루4시간 20일간)에 약 월12만원 자부담을 내야하며, 2등급은 월96시간(24일간) 약 14만원의 자부담을 내야 합니다.



또한 최고 중증인 1등급은 112시간(28일)에 자부담은 약 월18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어떤 등급이 되든 지금의 활동보조서비스 자부담보다 약 10만원 이상 많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수급자도 아니고 자식들이 보내주는 월 생활비 30만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활동보조서비스보다 시간도 적고 자부담도 많아지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걱정이 앞서 밤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저처럼 전신마비로 팔, 다리며 손가락하나 움직일 수 없고 밥도 도우미가 먹여줘야 한다면 정신이 멀쩡하고 인지능력이 있는 장애인이라면 노인요양보험 최하 등급인 3등급도 못한 채 등급 외로 탈락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몸은 점점 노화되고 합병증은 많아져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저같은 장애인은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결국 이렇게 고통 받으며 살다가 죽으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고통 받으면서 살 바에는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다 잊고 차라리 하루빨리 죽고 싶습니다.

장관님, 65세가 넘는 장애인도 활동보조서비스를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법을 고쳐 나이 많은 장애인들이 그나마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장애인 모두의 목소리를 담아 두 손 모아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출처-에이블뉴스〉

## 독 자 기 고

김민성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치료교육팀장)



3박4일간의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과 처음 가보는 일본이라는 점에서 많은 기대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떠난 연수였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연수자들이 전혀 친분이 없는 관계였지만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 인지 일적인 일들을 이야기하

면서 조금씩 어색함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일본이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앞선 시설과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처음 방문한 시설은 요코하마지정장애인시설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제빵, 음료만들기, 직물, 목공, 공예 등을 통한 재활을 목적으로 훈련을 하는 시설로 동네 가운데 시설이 설립되어 있어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깨끗한 시설과 1인 1실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보여졌다.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동경장애인복지센터로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체육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 수영장, 운동장, 탁구, 테니스코트, 체육관, 그랜드 폴프 등 다양한 활동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전문 체육강사들의 코치를 받을 수 있어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동경도심신장애자복지센터(후레이 공방)로 시내한복판의 편의점을 리모델링해서 구형에서 건물을 임대해주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밭에서 고구마 등 각종채소를 길러 판매를 하고 있었으며 직원 중에 한국 사람이 있어서 한국산 물품들도 매장에 진열되어 있어서 매우 반가웠다. 규모는 작았지만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잘 진열되어 있었으며, 장애인들이 직접 빵을 굽고 커피를 파는 모습과 아가자기하고 예쁜 카페분위기

가 자주 들르고 싶게 만들었다.

이렇게 연수 일정을 마치면서 우리는 선진 장애인복지 사업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이번에 보고 느낀 점들을 한국으로 돌아와 현장에서 접목하여 사업을 구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번 일본 연수가 개인적으로는 매우 의미 있는 연수였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해보게 되었다.





## 독자수기

본지에 게재된 글은 지난 2010년 10월 18일(월)과 19일(화) 양일간 올림픽파크텔에서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의 주관으로 개최된 『2010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에서 ‘자립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한 박종원·정명옥 부부의 수기로, 장애극복에 대한 강한 의지와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긴 작품입니다.

# “장애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져 준 남편”

박종원·정명옥 부부 (자립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어느 덧 남편과 결혼한지도 23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다. 지금 생각하니 정말 세월이 유수같이 빨리도 흐른 것 같다. 어려서 소아마비라는 병으로 평생 장애를 입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었는데 주어진 삶이기에 또한 내가 피할 수 없이 지고 갈 짐이기에 정말 매사에 많이도 참으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다.

나는 6.25의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이 놀랐고 어느 날 심한 열과 함께 소아마비라는 병으로 원치 않는 장애를 갖게 된 것이다. 전쟁 중에 병원 한번 가지 못한 채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마저 열한 살 때 돌아가시니 나는 정말 형제들에게 큰 짐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려서는 뽀뽀뽀뽀 조금씩 걷기도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 점 몸은 심해져서 아주 걸을 수 없을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 때 나는 형제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오빠네 집에서 나기로 결심하게 되어 1979년도에 충주로 오게 된 것이다. 그 당시 오빠네 집에 있으면 편하기는 하겠지만 20년 후를 생각하니 행여나 조카들의 혼사 길을 막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여서 아는 친구의 소개로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찾아온 것이다.

처음에 와보니 팬히 왔나보다 하고 후회도 많이 했지만 그 모든 것이 나를 강하게 만드는 도구였었다는 것을 지금에야 알게 되었다. 의식주 특히 겨울이면 참을 수 없는 추위는 정말 큰 괴로움이었다. 그러면서 전자일을 하면서 겨우 연명도 해보았지만 주변에서 돕는 손길도 많았기에 잘 견딜 수가 있었던 것 같다.

내가 형제들에게 짐이라는 생각과 장애의 나의 삶에 무게가



지난해 10월 18일(월)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된 『2010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에서 ‘자립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고 있는 박종원·정명옥 부부.

너무 무거워 나를 짓누를 즈음에 남편을 만나게 되어 나의 중년의 삶은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 되었다. 나는 어려서부터 결혼이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던 중에 재활원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

남편은 장애인은 아니었으나 그 역시 어려서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고생하다가 지병을 앓고 있어서 재활원에 잠시 머물렀던 사람이었다. 그러다 재활원이 문을 닫게 되어 모두 뿔뿔이 헤어졌다가 3년 후에 내가 살고 있던 집에 이사를 오게 되어 한 울타리 안에서 살면서 아저씨는 나의 일들을 도와주었다. 연탄불 가는 일, 일거리를 맡아주는 일, 그리고 아저씨는 가끔 나의 휠체어를 밀고 나가 시원한 바람도 쐬어주곤 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지내면서도 나는 결혼할 마음은 전혀 없었다. 내 마음 속에는 나의 힘든 삶은 나 하나로 끝낸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주변에서 아저씨와 결혼하라고 권하였지만 나는 전혀 결혼할 마음은 없었다. 나

는 나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나의 장애는 너무 심해서 기본적인 내 몸 하나 건사할 수 없어 모두 친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더욱이 그 당시 옛날에 낡은 일반 주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내 주변에는 장애인들이 결혼하여 모두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었지만 나는 그들의 삶을 부럽다거나 나도 저들과 같은 삶을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단지 잘 사는 친구들을 보면 기쁘고 그들이 사랑스럽고 또 못사는 친구들을 볼 때는 마음이 아팠었다. 그 친구들은 항상 나를 가족 같이 대해 주었기에 나는 조금도 외롭지 않았기에 결혼을 생각 안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던 어느 날 아저씨는 술이 좀 취한 모습으로 내게 하는 말이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이웃으로만 어울려 살거나? 우

리도 함께 살자” 라고 하는 말에 나는 말도 되지 않는 말하지 말라고 잘라서 말했다. 그 이유는 아저씨가 몸이 아프면 약한 첩사다 줄 수도 없고 따뜻한 밥한 끼 차려 줄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늘 아픈 아저씨가 죽으면 나는 더 초라해지지 않겠느냐면서 한마디로 거절하였었다. 아저씨는 “알았어” 하면서 돌아서서 나가셨다.

그 후에 아저씨는 배가 많이 아파 병원에 가서 대장을 절제하는 큰 수술을 받은 후 많이 아플 때 우리는 결혼하기로 하고 많은 사람들의 우려 속에서 결혼을 하였다. 남편의 마음이 변할 거라, 아니면 얼마 살 수가 없을 거라는 등 정말 많은 염려와 구설 속에 우리가 서로 안지 7년 만에 결혼을 하였다.

우리는 그동안 서로 힘든 일들도 많았지만 남편은 변함없이 나를 짊어 주고, 빨래며 식생활이며 변함없이 가정을 꾸려오고 있다. 남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 그 무엇에 비할 수가 없다. 땀을 뻘뻘

흘리며 집안일이며 음식을 만들 때면 나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남편 앞에 깜짝 쇼라도 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이제 남편이 나이도 많아지고 나도 더 힘이 없으니 더 어렵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전동휠체어가 있어 얼마나 수월하고 감사한지 하나님께 주변에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할 뿐이다. 그러나 그렇게 지내면서도 우리는 전혀 결혼할 마음은 없었다. 내 마음 속에는 나의 힘든 삶은 나 하나로 끝낸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모든 분들의 사랑이며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이었다.



박종원·정명옥 부부



# ‘후원’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원동력

## ‘마지막 가는 길’ 전재산 500만원 기부 청주 사직2동 故 강태원씨 전재산 기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지체장애인이 세상을 떠나며 본인의 전 재산을 불우이웃성금으로 기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진한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달 15일(토) 62세를 일기로 작고한 고(故) 강남원 씨의 유족은 고인의 유지를 따라 1월 22일(토) 청주시 흥덕구 사직2동 주민센터에 고인의 전 재산 500만 원을 기탁했다.

고(故) 강남원 씨는 “사는 동안 많은 이웃들로부터 도움만 받고 살아왔다”며 “이에 보답하기 위해 비록 적은 돈이지만 본인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체3급 장애를 가진 강 씨는 사직2동 일원의 무허가 주택에서 매달 45만원 정도의 정부지원금으로 생활을 이어왔다.

지난 2009년 5월 함께 생활하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사지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모든 것을 홀로 해결해야 했고, 삶의 무게는 더욱 무거웠다.

이 때 주위의 수많은 도움의 손길이 그를 지탱해줬다. 동주민센터에서는 간병서비스를 통해 아픈 데는 없는지 수시로 살폈고, 인근 복지관에서는 밑반찬 등을 챙겨줬다. 또 지역 직능단체 등 이웃들과 가족 이상의 정을 나눴다. 그런 이웃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강 씨는 또 다른 ‘나눔’을 택했다.

이즈음부터 최소한의 식비와 난방비 등을 제외하곤 정부지원금을 모두 이웃돕기성금으로 남몰래 모아온 것. 유족들 또한 넉넉지 못한 형편이었지만 강 씨의 장례를 마친 직후 동주민센터에 성금을 전달하며 고인의 유지를 받들었다.

이수나 사회복지사는 “살아생전 강 씨는 주위의 도움에 감사해하며 남을 돕지 못하는 본인을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분으로, 항상 본인이 죽으면 남은 것 모두를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사셨다”고 강태원 씨를 회상하며 “그가 남긴 ‘나눔’의 마음은 우리에게 더 많은 교훈을 남겨줬다”고 전했다.

## 한화건설, 설 맞아 봉사활동 실시



한화건설 이근포 사장과 임직원 30여명은 1월 31일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서울 성동구 성동장애인복지관을 찾아 지적장애인과 함께 전과 떡 등 ‘설차례 음식’을 만들며 따뜻한 온정의 시간을 가졌다.

이근포 사장은 “유난히 추운 겨울, 설 음식을 나눠먹는 미풍양속을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며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꼈다”며 “2011년을 ‘찾아가는 봉사활동’의 해로 삼아 봉사의 대상과 범위를 더욱 넓히고

전 임직원이 100%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건설은 지난 2006년부터 성동장애인복지관과 인연을 맺고 장애아동지원사업과 월 1회 이상 임직원들의 자원 활동을 펼쳐 왔다. 또한 지난 2005년부터 사랑나눔 집수리 봉사를 통해 한 해 평균 100여 가정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나 장애인,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문화체험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전국에 16개 시·도 협회와 232개 시·군·구 지회를 두고 있는 비영리 순수 장애인단체입니다.

또한 이 나라 480만 장애인들의 질 향상과 자립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각종 교육사업, 장애인예술제 및 중증장애인배우자 초청대회, 장애인자립작업장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를 선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장애인복지를 꽃피우고 이들이 다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으로 확신하며 ‘사랑 나눔 운동’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 ■회원구분

일반회원 (2천원/월)	일반회원2 (5천원/월)	일반회원3 (1만원/월)
특별회원1 (3만원/월)	특별회원2 (5만원/월)	특별회원3 (10만원/월)
단체회원 (연 20만원이상)	기금회원	물품회원

### ■후원금 납부방법

- 지로, 자동이체
- 후원계좌 : 국민 822-01-0136-451  
농협 033-01-174991
- ※ 후원금은 연말에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신청

- ① 전화신청 : ☎02)796-4280
- ② 홈페이지 신청  
협회 홈페이지(<http://www.kapdp.or.kr>) 접속 - 나눔마당 - 후원신청

### ■ 2011년 1월 후원자 명단(가나다 순)

강지민, 김경희, 김구환, 김정태, 김진호,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환경, 남용원, 민속박물관, 박정현, 박종형, 서재훈, 선병욱, 송현, 양순연, 유재복, 윤채환, 이상돈, 이은정, 임재중, 장재권, 정은연, 조태동, 주명희, 주승운, 주영래, 주영우, 최옥란, 최준량, 해피빈, PODO I&C  
(후원자님이 후원해 주신 후원금은 480만 장애인들과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 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 후원자에게는 ‘월간 새보람’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응  
모  
요  
령

‘★’에 있는 말로 단어를 조합해 우편엽서에 정답을 적어 보내 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홍보협력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답  
트

산모가 아무 탈 없이 순조롭게 아이를 낳음.

1				2		
		3		★		
4						5
					6	
					★	
		7		8		
		9				



## 지난호 정답

	★ <sup>1</sup> 제	중	<sup>2</sup> 원			
	사		<sup>3</sup> 한	반	<sup>4</sup> 도	
★ <sup>5</sup> 역					<sup>6</sup> 탄	<sup>7</sup> 소
도						작
<sup>8</sup> 산	수	<sup>9</sup> 유			<sup>10</sup> 화	농
		일			타	
	★ <sup>11</sup> 구	한	말			

## | 가로열쇠 |

- 바둑 10계명인 ‘위기십결圍棋十訣’ 중의 하나로 “작은 것은 버리고 큰 것을 취하라”는 뜻의 사자성어.
- 법을 어기면서 몰래 물품을 사고파는 행위. 특히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물품을 공정 가격 이외의 값으로 사고파는 일을 말한다.
-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과 괴산군 및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 사이에 있는 1,058m 높이의 산. 소백산맥 가운데 있으며 경치가 좋아 소금강(小金剛)이라고 한다.
- 지방세의 하나. 재산을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매기는데, 부동산·자동차·중기(重機)·입목(立木)·선박·광업권·어업권 따위를 취득할 때 매긴다.
- 선택식물에 속하는 은화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잎과 줄기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관다발이 없는 하등 식물로 고목이나 바위, 습지에서 자란다.
- 높은 벼슬아치의 집에 딸려 있으면서 그 벼슬아치를 받드는 사람.
- 거리의 미관(美觀)과 국민 보건 따위를 위하여 길을 따라 줄지어 심은 나무.

## | 세로열쇠 |

- 필기도구, 계산기, 수판 따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머릿속으로 계산함.
- 불가에서 일반 사회를 이르는 말.
- 2011년 신묘년은 ○○의 해.
- 조선 중기(1545년, 인종 1~1598년, 선조 31)의 무신.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여해(汝諧)이며 임진왜란 때 왜군(倭軍)을 무찌르는 데 큰 공을 세운 명장이다. 옥포대첩, 사천포해전, 당포해전, 1차 당항포해전, 안골포해전, 부산포해전, 명량대첩, 노량해전 등에서 승리했다.
- <경제> 물건의 값. 여러 가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종합적이고 평균적으로 본 개념이다.
- 노래 부르는 것이 직업인 사람.

## 1월호 정답

## 구제역

## 당첨자

김중호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윤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정상희 경남 김해시 구산동

## 틀린크림찾기 DIFFERENT SEARCH



두 사진에는 3곳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매달 정답자 세분에게는 가브리엘 천연공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천연비누’를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가브리엘 천연공방의 ‘천연비누’

## 천연화장품 & 천연비누



당신의 피부...  
피부가 살아 숨쉬는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연을 생각하는 아인미의 모든 원료는 화학원료가 아닌, 자연 속의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과 천연광물, 천연색소와 화장품 원료 기준에 적합하고 검증된 원료들만으로 만들어진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자연의 힘으로 스트레스와 유해물질들로 지치고 손상된 당신의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인미 비누는, 천연비누업계 최초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 및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 받은 제품을 취급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기념품, 답례품



천연화장품



천연비누



천연물렌징



천연바디워시

천연주방세제

※가브리엘 천연공방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쓰여집니다.



■문의  
Tel. 930-0783 Fax. 930-0784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021-21  
http://www.gabrielcenter.or.kr

응모요령 : 2장의 사진 중 아래의 사진에 틀린 부분을 표시하고(2개 이상) 절취한 후, 우편엽서 뒷면에 붙여서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지도자 홍보협력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20<sup>th</sup>  
42.195Km  
2011.5.8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감동과 환희의 현장!! 당신을 주인공으로 초대합니다.



2011년 5월 8일(일) AM 08:00

잠실올림픽주경기장

[www.seoul-wheelchairmarathon.or.kr](http://www.seoul-wheelchairmarathon.or.kr)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KAPPD Korea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 조직위원회  
S.I.W.M Seoul International Wheelchair Marathon Organizing Committee